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12회)

高永煥

現代制度의 弊害는 消費者, 生産者, 資本家の 利益이 서로 合致하지 못하고 分離하는 點으로부터 生하는 것이다. 此三者 中の 하나이나 社會의 全般 또는 他兩者와 同一한 利害關係를 有하는 者が 있지 못하다. 消費組合制度는 消費者와 資本者の 利益을 合致하고 산디카리즘[산디칼리즘]은 生産者와 資本家の 利益을 合致하되 그 中에 二者를 合致하거나, 또는 産業 支配者の 利益과 一般社會의 그것과를 全然 同一하게 하는 者は 하나도 업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 中の 어느 것을 勿論하고 産業爭鬪를 能히 避할 者が 업스며, 싸라 仲裁者로서 國家의 必要를 否認할 者が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 中の 하나이라도 現代에 存在하는 制度보다 優勝한 것은 勿論이오, 그 兩者를 合하면 現在 産業主義의 大部分의 弊害를 驅除할 것은 分明하다. 大概 사람이 政治的 民主主義를 達하기 爲하야서는 多大한 努力을 拂하되 産業界에 民主主義를 採用하기 爲하야는 그와 갓흔 努力을 行치 아니하는 것은 非常히 怪異한 일이다. 吾人은 밋건대 消費組合의 基礎 위에 서거나 또는 산디칼리즘의 主張하는 바와 갓치 産業을 一種의 自治制로 하야 政府組織의 單位로 하든지를 勿論하고, 如何間 産業的 民主主義를 實現하면 無限한 利益이 그로써 結果될 줄노 確信하노니, 元來 政府組織의 單位가 地理的이 되어야 만할 理由가 存在하는 것은 아니라. 勿論 이와 갓흔 制度가 아즉 交通이 不便한 時代에 잇서는 必要하얏스나, 現代에 至하야는 그 理由가 消滅한 것이다. 産業民主制를 確立하면 이로써 多大數의 勞動者는 그 勞動에 對하야 다시 興味와 自尊心을 持하게 될 터이며 現代에 잇서는 少數者 外에는 모든 者에게 否認되는 創造的 本能에 對하야 다시 發露의 機會를 回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갓흔 制度는 勿論 地主의 廢止와 資本主에 對한 制限을 要求하는 것이다. 그러나 收入의 平等을 主張하는 것은 아니라. 또 그는 社會主義와 갓지 아니하야 靜的이나 또는 最後의 制度가 아니라. 다만 精力과 創造性을 爲하는 大體上 構造에 不過하는 것이다 吾人은 밋노라. 個人의 自由 生長과 産業主義로서 必然히 發達된 大規模의 技術的 組織과 서로 調和되는 方途는 오즉 이

와 갓흔 方法 外에 道理가 無한 것을. (財産論完)